

자기소개서

패기 넘쳤던 20살의 믿을 구석 있는 방향

고등학생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해 미대에 진학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미대생이라는 관념에 집착한 결과로 저는 원치 않는 대학의 원치 않는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를 해야 하나... 20살의 결론은 자퇴였습니다. 그리고 22살 조금 더 큰 머리로 저는 재입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어차피 모르는 것, 대학에 가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

뭘 좋아하는 지 모르니까 일단 다 해보자.

다들 그러죠, 성적 맞춰 가는 대학이라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같은 학과의 학우들을 보면 모두 자신이 가진 꿈들이 확실했습니다. PD, 영화감독, 카피라이터, 기자, 아나운서 등등...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떨어진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새로이 찾아내겠다는 마음가짐에 저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의류학과 복전을 하기 위해 수업을 수강했다가 F를 받기도 하고, 시를 써서 교내 문집에 제출했다가 문학상을 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 미디어에 꽂혀 상호작용이라는 단어에 심취해 웹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여 사회과학 소속의 웹 코딩 소학회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모든 열정을 쏟을 만큼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아직 부족한가보다, 더 해보자.

밖에서 찾지 못할 거라면 안에서 찾아가자.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나서야 전공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너무 방대했습니다. 어딘가 하나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전공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처참히 실패한 방송 예능 기획부터, TV 드라마 기획, 기사도 써보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어보고, 전시회도 기획해보고... 그렇게 저는 난 뭘 좋아하는 거지...라며 매일 고민하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MCN, 한 번 해볼까...?

대망의 4학년 1학기, 1인 미디어 기획과 제작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생 각자가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 관리하는 강의였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 수업을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뜻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빠들빠들한 실력으로 수강생 모두의 채널 정보와 SNS 정보를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MCN의 실질적인 업무에 비해서는 매우 단편적이고 제한된 역할을 체험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열정을 여기에 모두 쏟고 싶다.**

SANDBOX, 제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게해주세요.